

종합·해설

■ 소비 증가에도, 분배는 갈수록 악화... 왜?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더딘데 주거비·세금 급증 서민들 압박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은 소득과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가운데 분배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더디데다 주거비와 교통비 등 꼭 써야하는 소비지출은 물론,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9.3% 증가-약 5년래 최고=지난 1·4분기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325만1천원으로 작년 1·4분기에 비해 6.2% 늘었다. 이러한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의 7.7%보다는 낮았지만 작년 전체 증가율인 5.1%를 웃도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4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4.0%였다. 소득 형태별로는 근로소득이 7.9% 늘어난 가운데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등 재산소득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월 평균 7만6천으로 1년 전보다 24.4%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2인 이상 도시근

로자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9.3%,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7.1% 늘어난 평균 376만4천원의 가구당 소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2·4분기의 9.6%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33만2천500원으로 15.5% 증가했다. ◇주거비·세금 급증=올해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229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늘어난 가운데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 지출이 무려 10.9% 늘어났다.

보건료비 지출 증가율도 13.0%로 2005년 1·4분기(3.6%) 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교통통신비 지출도 10.4% 급증하면서 가계의 발목을 잡았다. 1·4분기 비소비지출은 세금·사회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40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 부담은 2006년 1·4분기 가구당 6만4천400원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7만5천400원으로 무려 17.1% 수

직 상승했고, 사회보험료 지출 역시 같은 기간 5만9천600원에서 6만4천800원으로 8.7% 늘어났다.

◇저소득층 적자 규모 증가-분배 사상 최악=올해 1·4분기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소득·소비의 개선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배 사정은 오히려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1·4분기 8.40배로 지난해 1·4분기(8.36배) 보다 높아지며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만 따져봐도 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전년 동기(5.80배)에 비해 악화되면서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전국가구 중 1분위의 소득은 1.4분기 7.7% 증가했지만 5분위는 같은 기간 8.2% 늘었다.

김 교육, '日 역사 교과서 왜곡' 항의서한

이부키 문부과학성에 전달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이부키 분메이(伊波文明)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서명법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학년도 세계사·일본사·윤리 3종의 고교 2·3학년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의 왜곡과 축소를 주도한 부분이 최근 확인돼 김 부총리 명의로 항의서한을 오늘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신인을 이부키 문부과학성으로 적은 이 항의서한은 이날 3일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내졌고 이날 오후 2시 배우장 교육관을 통해 문부과학성에 전달됐다.

김 부총리는 항의서한에서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내용 중에 양국의 선린관

계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침략은 결국 패전으로 귀결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귀국의 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수정의견까지 내면서 독도 영유권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해 통과시킨 것은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누려야 할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야 할 어린 학생들의 앞길을 저지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문제가 양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황소장, 개미들의 투자는



장필수

경제부 차장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코스피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500선을 돌파한 후 이달 들어서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 1,6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가 1,500세대가 열리며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향후 장세를 놓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사이에서 설전이 뜨거웠지만 이젠 무게중심의 추가 '황소'전에 선 낙관론자들로 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비관론자인 '곰'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함평출신으로 마지막 비관론자로 꼽히는 대한투자증권 김영익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4일 증권강연자 강수를 찾은 자리에서 장세 전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9·11 테러를 포함해 세번의 증시 폭락을 적중시켜 '좁쌀계'로 불리는 그는 "지난해 주가 폭락 전에도 주식을 팔라고 해 증권사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 거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기차게 2분기 조정론을 펴고있는 김선태 장 조차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해 내년까지 1,7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이냐는 이견이 없다.

1989년부터 네차레나 저항선 역할을 해온 주가 1,000선을 17년만에 돌파한 만큼 미국 다우지수 등 선진국 증시처럼 장기 상승국면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강세도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실적대비 저평가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주가 급등은 개인들을 다시 끌어들여 버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9명 중 1명이 이미 주식 직접투자를 하고 있고, 광주 시내 증권사 영업점에는 요즘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늘고 있다. 월초부터 급증해 온 주식형 펀드 판매도 주춤하고 있다.

개미들이 객장에 몰려들면 고점이라는 증시 격언이 이번에도 맞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수가 오른다고 수익을 챙기는 개미는 많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예전처럼 문자나 투자에 나섰던 아무리 주식시장이 좀더더욱 깨지기 십상이다.

요즘같은 상승장에도 코스닥 L사처럼 작전주에 뒤통을 찔렀다 강퍽을 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주가 1,500시대,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 장기 투자하는 투자습관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bungy@kwangju.co.kr



제1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15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가 열린 9일 금강산호텔에서 남북 이종덕씨가 북측 아들 김홍준씨를 만나고 있다. 사진 뒷쪽은 김홍준씨 동생 김강준씨. 연합뉴스

감사원 "재경·건교부, 일괄입찰 남발로 예산낭비"

매년 전체 공공발주 물량에서 40%를 차지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와 대안입찰제도의 남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와 대안입찰제도에

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괄입찰제도는 낙찰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지만 건교부

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모호해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일괄입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입찰제도는 발주청이 작성한 원안설계보다 비용과 기능면에서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엔 원안작성 전 입찰방법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안입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등 14개 기관에서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공사로 결정된 137건을 분석한 결과, 39%(53건)는 공기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공사인데도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피랍 임직원, 11일 오전 귀국할 듯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풀려난 정태영 상무 등 대우건설 임직원 3명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피랍 임직원들이 6일 동안 억류돼 있어 많이 지친 상태고, 마을 풀었음 가족들을 위해 일단 귀국하기로 했다"며 "현지 항공사 자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일단 11일은 도착 가능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회사측은 직원들이 안정을 되찾는대로 현지시각 9일 오후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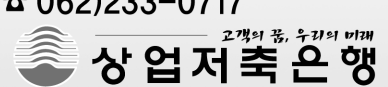
사무소가 있는 포트하코트에서 라고스로 출발해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10일 오후 5시 55분(현지시각) 루프트한자 LH 712편으로 귀국토목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25분에 도착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태영 상무 등 임직원 3명은 선박이 우리측에 인도된 후 현재 포트하코트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신체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락잔금대출 전문은행

경락잔액의 100%까지, 간단한 심사로 OK!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7개>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7 rows of auction listings.

Table with 5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7 rows of auction listing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7 rows of auction listings.

● 고건 부동산의 연례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매각방법
● 경매방법
● 1. 경매신청
● 2. 경매가일
● 3. 매각결정일
● 4. 매각장소
● 5. 매각방법
●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8. 주의사항